

V MIGRANT WORKERS' VOICE E

이주노동자연대신문

창간호(한글판)

발행:이주노동자의 목소리 편집팀 / TEL:02-985-9061 / Email: vmigrant@hotmail.com

2001. 2. 1



노동자대회에서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노동자

발간사

우리는 함께 가고있다!!

헬렌 오베로(필리핀)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가 되었는가?

자본과 노동, 상품의 불평등한 교환은 약소국과 강대국간에 존재하는 경제관계를 야기시켰다. 이 관계는 한 축으로는 강력한 자본주의 사회를, 다른 한 축으로는 종속적인 저발전 국가들을 만들었다.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 강력한 자본주의국가들은 더 약한 국가들의 저발전이나 경제적·정치적 발전을 지배할 수 있다. 가령, 자본주의국가들은 APEC, WTO, IMF-WB 정책들을 통해 값싼 노동의 교환을 용이하게 했으며 노동자들을 수출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애물들을 제거했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은 싸고 근면하며 길들이기 쉬운 노동에 관심을 갖는 누구에게라도 팔리는 대상으로 제공되었다

전지구적 이주현상이 계속 일어나듯이 부국과 저발전국가들간의 불평등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잘 발전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의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인간자원의 지속적인 착취에 성공해왔다. 값싸고 말 잘듣는 노동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 때문에 인간자원의 수출은 정부의 수지맞는 장사가 된다. 그리하여 필리핀과 같은 저발전국가들의 정부는 자국 민중들을 해외로 보내 그들 국가의 경제를 위해 필요한 달러를 벌어들여오라고 강요하고 이에 동떨어지는 노동자들의 거대한 포주가 되었다.

발전된 국가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노동력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 의해 규정된다.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3D(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로 분류되는 업종, 특히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내국인들로부터 기피되는 일에 대부분 종사한다. 또한, 자본가들은 보통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이고 민주적인 창구를 통해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처지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분노를 직접 자신들이 대의 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에 정식으로 개입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극소수의 정부에서만 이주노동자들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에 끼어두고 그들을 대의할 법적 혹은 공식적인 권리가 없다 - 을 대의하고 협의하기도 하는 창구를 형식적으로나마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에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 그리고 정치적 권리들이 인정되거나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NGO(비정부기구·민간단체)들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문화와 종교 혹은 다른 피부색깔을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차별들을 당하고 있다. 어떤 경우, 내국인 노동자들 혹은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일자리를 빼앗는 자들"로까지 바라보기도 하며 이러한 긴장은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 또는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노골적인 적대까지 드러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임의적이고 차별적이며 매우 제한적인 노동을 하고 비자의 조건에 종속된다. 불법체류(미등록)이거나 인신매매된 자들 혹은 불법으로 취업했거나 여성이주노동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온갖 종류의 육체적, 성적 또는 언어폭력에 매우 심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들은 노예로 취급당한다. 이러한 인권침해와 폭력의 희생양들은 그들의 상황을 약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법적보호나 기구등이 거의 없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구제는 대부분 시민 혹은 종교단체나 NGO와 같은 비정부 단체들에 의해 제공된다. 송출국도 유입국도 적절한 핫라인 서비스나 긴급한 경우의 쉼터, 상담과 그것에 대응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혹은 재활센터 등은 부재한 상태다. 기구라고 해도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만큼의 수이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고와 감시가 부족한 것이다.

송출국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현금이 바닥나 사면초가가 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쏟아붓는 "젓짜는 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노동은 그들의 송금액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실업을 완화하는 길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여, 단결하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자! 노동자연대는 우리 모두가 실현해야 할 소중한 것이다. 우리들의 권리를 향한 끊임없는 선언은 금융 엘리트들과 특히 IMF-WB, WTO 그리고 APEC과 같은 다국간 국제기구에 의해 축적된 자본주의의 부정한 억압과 착취의 역학과 맞서는 것이다. 우리의 대오 그리고 한국 노동자가 함께하는 단결은 우리의 싸움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무기다.

이러한 불의와 맞서기 위해 우리는 지배와 억압의 폭력을 부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대오를 모으고 모든 억압받는 노동자들과 사회의 다른 영역의 민중들이 단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권리를 주장하며 이론과 실천의 양 측면에서 조직력을 이용해야 한다. 즉, 이는 우리 노동자권리와 복지의 보호·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대중조직들을 형성함

으로써 가능하다.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상황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이해를 방어하고 향상하는데 쓰일 집단적인 힘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불의와 착취를 낳는 조건들과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들은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해야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공동의 단결된 힘에 의지할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바친다 이것이 바로 자기 다른 국적을 가진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의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단결해야 하는 까닭이다. 한국에 있는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뻗어나가고 동시에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발행한다. 이 편집물은 우리의 소식과 공동체 정보교류, 이주노동자 이슈와 관심사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신문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와 동일한 노동자의 관심은 이후 지역에서나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일깨우고 단결시키는 역할을 추동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는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듣는 장으로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는 한 달에 한 번 발행될 것이다. 다루어질 기사는 문화·교육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별 이슈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이주노동자 관련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다. 신문은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자 뉴스와 교육글, 그리고 공장에서의 이주노동자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등을 다루는 주요기사 및 사실 등으로 나뉘어 진다. 신문의 지속적 발행을 통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 지역으로 울려 퍼질 것이다. 이주노동자들과 모든 독자들은 직접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며 허심탄회한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조국들의 최근 소식은 왜 우리가 이주했으며 이주노동의 근원에 관하여 이주노동자들과 토론하기 위해 대중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오 내에서 그리고 한국 노동자와의 지속적인 연대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변호와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바쳐질 것이다. MWU

우리의 주장

왜 모든 노동자는 단결해야 하는가?

편집팀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남성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의 공통점은 바로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노동자는 돈이며 배도 없으며 유일하게 가진 것이라곤 노동할 수 있는 몸동아리뿐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수단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그가 어떤 지역, 어떤 공장에서 일하던 국적이 어디인지는 결코 중요치 않다. 사실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사이에 마치 거대한 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의 국적만 빼놓고 본다면 우리는 똑같이 "노동자"라는 단순하면서도 동일한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로 쪼개고 여성, 남성,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고용주들의 공통의 목적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쪼개어 더 싼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창출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자본가들은 서로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을 하며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한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훨씬 더 노예화하고 노동 일을 연장시키고 휴식시간을 빼앗으며 그들을 단순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만든다. 또한 신기술의 도입과 기계의 도입을 통해 복잡한 기술은 필요 없게 되고 재빨리 기계에 익숙해지고 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기꺼이 일하는 평범한 비숙련 노동자로 대체된다.

자본가들의 증가된 억압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해고된다. 자본가들은 단지 노동자들이 자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지불하고 노동자가 생산한 모든 부를 자기 주머니에 챙긴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그들이 이용한 노동시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착취한다. 그리하여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는 손에는 고급 저택과 빌딩, 사치스러운 옷 등 부가 쌓이는 반면에 죽어라 일하는 노동자들의 손에는 빈곤과 해고의 위협만이 도사리게 된다. 기계와 신기술의 도입은 육체노동을 덜 요구하게 되며 자본가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게 된다. 거리에는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며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며 급기야 이주노동자들처럼 사랑하는 가족과의 생이별의 슬픔을 뒤로한 채 먼 타지에서 노동을 하기도 한다. 이에 자본가들은 가장 값싼 노동자를 찾는데 혈안이 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면 줄수록 자본가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자본가들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그들에 의해 노동자들이 쥐어짜일

공장에서는 지금?

한국자본은 그의 손을 영원히 가져갔다!!

리포터 : 슈타(방글라데시)



그의 이름은 라주다. 그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1년 반전에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왔으며 어떠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 금속사업장이었다. 임금도 괜찮았고 사장도 잘 해주었으며 모든 것이 나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는 공장의 모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숙련공이 되어갔다. 다른 이들처럼 그에게도 시간은 기쁨과 슬픔과 함께 지나갔다. 지난 12월 8일 아침 그는 어느 때처럼 일을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주형 틀을 바꾸고 있었다. 그의 손은 위험한 구역 안에 있었다. 어떻게 스위치를 눌러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그의 오른손이 기계에 걸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이 잘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바닥으로 굴렀다. 절대 그 손을 다시 가져올 수 없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제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의 똑같은 손은?

다행히 그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작업장에서 손가락이 잘려도 보상은커녕 하소연도 못하고 공장 밖으로 쫓겨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우리는 열악한 작업 환경과 안전장치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무방비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장들이 우리를 좀더 싼 임금으로 고용하여 돈을 더욱 많이 벌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이미 잘린 손은 다시 예전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그의 정신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 손이 잘린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이것이 현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우리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며 노동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MWU

알아봅시다 **방글라데시 빅토리아** 안둘란(방글라데시)

12월 16일은 민중이 방글라데시 공화국을 쟁취한 승리의 날이다. 이 날, 방글라데시는 명실공히 세계지도에 자유국가로 인식되었다. 1971년 3월 25일 자정 파키스탄 군대는 동 파키스탄의 민중을 갑자기 공격했다. 민중은 이 침입에 단호히 저항했다. 방글라데시 민중의 자유선언이었다. 그들은 파키스탄 군대와 싸웠다. 삼백만의 열사들의 자기희생과 이십만 어머니들과 누이들의 엄청난 고통 그리고 민중의 커다란 희생은 저 자유를 위한 싸움에 바쳐졌다. 구개월동안의 투쟁 끝에 파키스탄 군대는 방글라데시 투사들앞에 무릎꿇었다. 구만 삼천의 파키스탄 군대는 자유를 위한 전사들에게 항복했다. 그리하여 세계지도에 한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다.

이 새 국가의 이름이 바로 방글라데시다. 12월 16일은 우리 민족의 삶에 매우 중요한 날이다. 승리의 날! MWU

때 개별노동자는 자본가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기력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으며 그야말로 말하는 기계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만약 한 노동자가 저항을 하는 날이면 자본가는 아주 간단하게 해고통지서를 날려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공장밖에는 더 낮은 임금으로도 기꺼이 일할 줄수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노동자들을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로 내몬다. 그리하여 노동자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본가에게 저항할 수단을 찾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한 필사적인 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개별적이며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이 부유한 자본가에게 종속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예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뿐이 없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상황은 변한다.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자본가들에게 억눌리고 빵 한조각을 얻기 위해 영원히 유순하고 말없는 고용노예로, 말 그대로 노예로 남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그들의 요구를 말하고 돈주머니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할 때 그들은 노예이기를 멈추고 인간이 된다. 우리가 노동자계급을 이야기할 때 자본가에게 굴종하고 자본가들의 경쟁에 휘둘러 내 결의 동료들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이들과 한 목소리로 투쟁을 시작할 때 그는 비로소 노동자계급, 실천하는 노동자가 된다

왜 노동자는 단결해야 하는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자본에 의해 고립되어져 있을 때는 노예가 될 뿐 자본가들의 부당한 처우와 억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개별적으로 노동자가 자본가들에 항의를 한다면 그는 그 사업주에게 적히거나 해고가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공동으로 저항하고 공동으로 투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노동자들의 힘은 생산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자 이 사회의 비밀이기도 하다. 만일 노동자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기계를 멈춘다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 없다. 이는 바로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이며 전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생각해 보라! 노동자가 거대한 자본의 노예이기를 거부하고 기계를 멈춘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주변을 보라!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며 교통수단, 먹는 것 등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의 손길에 거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한 노동자의 힘은 쪽수로부터 나온다. 자본주의 사회는



더 많은 임금 노동자들을 배출해낸다. 그에 비해 자본가들은 한 줄 뿐이 안된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한줄뿐이 안 되는 세력으로 노동자위에 군림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온갖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교육이나 이론들을 생산하며 경찰이나 군대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영구히 보장받으려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사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뭉치고 단결하기만 한다면 누구도 꺾지 못할 거대한 세력으로 형성된다. 그가 쪽수에서 이미 잠재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기에 "당신의 군센 팔이 원한다면, 모든 공장과, 세상은 멈출 것이다"

노예가 자본가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동하고 살아가려는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할 때 노동자들은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동료들이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 노동자들은 커다란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말하며 자신과 자신의 임금만을 생각지 않고 동료들과 더불어 노동자의 대의를 옹호하는 모든 현장동료를 생각하게 된다. 오히려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서로 싸우는 자본가들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자신의 동료들을 버리고 고용주들과 거래하는 자들을 경멸한다. 이것이 진짜 노동자이다.

자본의 억압에 맞서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어떤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있든지, 내지는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무관하게 노동자는 하나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이 아니라 뭉쳐야 하며 투쟁에 나서야만 한다. 그랬을때만이 우리는 그 자랑스런 노동자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힘차게 진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서 것을 겁내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되어 강철주먹을 만들어 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요. 함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다. 자본의 칼날에 할퀴고 찢히고 생존권을 박탈당해야 했던 그런 시절은 투쟁, 단결과 함께 영원히 지나갈 것이다. 그런 운명은 오직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만 지워지는 운명일 뿐이다. 노동자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가진 것은 몸뚱이뿐이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고통으로부터 탈출하여 희망이라는 찬란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이주노동자 목소리"도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투쟁! **MWU**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 소식

◆ 방글라데시 공동체 소식 ◆

[리포터:주타]

Bangladesh Patriot Society(B.P.S)는 마석 성생공단에서 12월 17일에 비조이 디보시(승리의 날 기념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몇 가지 문화 행사와 콘테스트가 있었다. 이날 한국 학생들과 다른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25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였다. B.P.S 회장은 "모든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이드무바라(축하의 날)를 포함한 국경일 행사를 기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다음 행사는 오는 2월 21일에 있을 이드무바라(모국의 날) 행사다. 그는 또한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행동에 대하여 설명했다. B.P.S는 다른 조직과 함께 연대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얼마전에 다른 지역에 두 개의 방글라데시공동체가 조직되었다. 하나는 안양 B.W.S.(Bangladesh Workers Society)이고 다른 하나는 마석 B.N.S.(Bangladesh National Society)이다.

B.P.S. 연락처

이메일: bps7@hotmail.com

◆ 필리핀 공동체 소식 ◆

[리포터:헬렌]

8개 필리핀 이주노동자공동체 연대조직인 KASAMMAKO(재한 필리핀 노동자공동체 연대회의)는 2001년 오는 1월 24일 3주년 창립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번 총회의 목적은 연대회의가 해왔던 활동과 사업들을 간단하게 발제하고 새로운 행동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새로운 간부들을 선출하는 것에 있다.

카사마코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힘써왔다. 그와 관련한 몇몇 활동은 회원들을 교육하고 필리핀 정부의 과도한 요금징수와 다른 형태의 수탈과 같은 필리핀 정부의 반민중, 반이주노동자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이주노동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요금중 하나는 일년에 25달러씩 필리핀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OWWA(해외노동자 복지국) 회비이며 이는 지나친 대사관 요금이다. 또한 카사마코는 대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법질서를 침해하며 불법 도박에 연루된 필리핀 대통령의 즉각적인 축출을 위한 운동을 했다.

카사마코는 또한 곤란에 처한 이주노동자들과 필리핀 동포들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구제하기 위해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주노동자 지원그룹들과 협력하고 있다.

카사마코 연락처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440 (우편번호 110-604)

이메일: kasammako@hotmail.com, kasammakorea@yahoo.com

◆ 네팔 공동체 소식 ◆

[리포터:성거르시]

일을 하며 네팔인 이주노동자들은 단결을 위해 지난 1993년 공동체를 건설했고 재한 네팔인공동체(Nepalese Consulting Committee)라고 이름지었다. 네팔인 모두가 의미를 알겠지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하인으로 부려왔다. 우리는 그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N.C.C는 네팔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또한 네팔노동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떠오르게 되었다.

일손의 부족이 늘어나자 대한민국 정부는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인간자원을 수입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미등록상태로 살게될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장들의 집단인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1994년 1월 4일 연수협력단을 만들었다. 연수협력단은 1994년 1월 15일부터 산업기술연수생 지침아래 인간자원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많은 연수생들이 5월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은 노예로서 존재하는 그들 위에 군림하기를 잊지 않았다.

N.C.C. 회원인 연수생들을 포함한 연수생들이 1995년 1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항하여 물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벌인 첫 번째 파업이었다.

95년 투쟁이후 많은 종교·사회 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많은 쉼터가 문을 열었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Khotang 사회복지연합, Dharan korea 지원모임, Myagdi 총친회 등 많은 지역 공동체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N.C.C의 결속은 작은 단위들로 분열되었다. 그래서 공동체는 현재로써는 과거에 비해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N.C.C.는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총회를 열어 신입 간부들을 선출했다. 신입 회장은 "N.C.C.는 단결로 강화해야 할 우리의 공동체이다. 지난 시기 N.C.C.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고 신입 사무국장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네팔인 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체 회원들은 "열심히 합시다"로 결의를 나누었다.

N.C.C.는 공동체의 기존 이미지를 쇄신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일해야 할 커다란 의무를 지고 있다.

N.C.C. 연락처

이메일: ncc@yahoo.com / http://www.my.netian.com/aeuao



이주노동자투쟁본부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주노동자투본 [http://migrant.nodong.net]



지난 10월 3일에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현재 이노투본은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권 지역 몇몇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앞으로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전체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하여 투쟁하고 평등하게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내국인노동자의 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똑같은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통제요소와 전 세계적인 노동자 지배정책에 대하여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힘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노동자도 혼자서 스스로 권리를 쟁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다르지 않으며 '노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결'해야함을 설득하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목표로 정선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우선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것을 위해 태어났다. 우리의 목표와 정신을 위해 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워낙 급한 문제가 있었기에 우선 '이주노동자투쟁본부'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조직체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올 초부터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대책'을 만든다고 선전하며 '고용허가제'를 올해 안에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추방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가 정부의 안 그대로 실시된다면 심각한 노동권 탄압이 이루어 질 것을 뻔하기에 고용허가제의 진실을 알리고 이주노동자의 진정한 이해를 대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눈감은 채 다만 연수생 제도가 올해 안에 형식적으로 폐지되는 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의 생존권은 무시되었다.

현재 네 달에 걸친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크게 두 가지를 실천하였다.

첫째,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위치를 각성하고 힘으로써 스스로 조직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정부의 '고용허가법률안'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국어로 번역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조직하기 위한 토론회를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고 함께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바라본 고용허가제는 "개 목걸이"였으며 "이 따위의 고용허가제가 통과된다면 우리 불법체류미등록노동자는 다 나가야 하지 않은가. 차라리 늘 불안하지만 현재의 불법체류자신분이 더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는 격렬한 반대와 규탄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고용허가법률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평가와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의 입장을 정리한 유인물을 이주노동자에게 배포하는 선전전을 수행하였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와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는 각각 수 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며 노동자대중의 의견을 규합하였다. 처음엔 "누가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결론으로 전진하고 있다.

아직은 적은 수의 공동체가 주체적인 자리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이주노동자투쟁본부는 그들이 보내주는 연대의 정과 신뢰에 보답하며, 그들과 함께 일과만과 정립하고 혁신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는 이주노동자가 최하층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한국 민주노동운동진영이 각인하고 연대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아직은 한국에서 대기업 조직 노동자와 같은 주류 노동자 운동이 아직 받아 안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확대 강화하여 비주류 노동자로부터 계급적 노동운동의 기풍을 혁신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도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랜드, 파견철폐공대위, 삼창플라자,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 닿는대로 달려갔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쟁하고 있는 모든 한국노동자의 싸움이며 그들의 투쟁은 동시에 우리 이주노동자의 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 때문에 또 신분적 문제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유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어느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들이 많이 모인 집회에서 자본에 의해 똑같이 억압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하나라고 힘주어 얘기했고 참가한 한국 노동자들은 모두 동의했다. 이들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전 세계적인 자본의 구조조정과 수탈의 강화에 맞서 노동자가, 초국적으로 연대하여야 하고

우선은 한국 내에서부터 연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 개월 전 이주노동자 투쟁본부가 캄캄한 세상을 향해 한 발을 던진 이래, 많은 노동자, 학생동지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연대를 얘기하였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개최한 3회의 연대집회에 수많은 단위의 노조와 활동가동지들이 참여했다. 이주노동자의 투쟁이 결코 외롭지 않음을 그리고 든든한 한국인노동자 동지들이 곁에 있음을 우리는 실천을 통해 알았다. 우리와 함께 활동하던 이주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는 꿈이 아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 그리고 국제적인 이주노동자의 연대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문을 읽고 있는 이주노동자 당신이 자신

의 권리에 눈뜨고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를 원한다. 당신과 같은 이주노동자가 남의 나라에 와서 잠깐 동안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묻어두고 살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당당하게 일할 권리가 있기에 그것을 방해하는 억압적 요소에 대하여 싸울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이주노동자투쟁본부는 아마 다음 신문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 신문을 통해 그리고 당신이 있는 곳에 달려가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조를 설립하고 한국 노동자와 한 목소리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억압받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으로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있다면 자신 있기 때문이다. MWU

한국 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다

◆ 이랜드 노동조합 ◆

이랜드라는 회사는 기독교 신앙을 모태로 하는 80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류 제작, 판매 회사이다. 이랜드사는 지난 IMF시기 사무직원을 제외하고 물품 판매와 창고 관리 노동자들을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사원으로 대체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IMF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506,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월급으로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이랜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현재 200여일 이상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창고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도 이랜드사는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사이다. 기독교 신앙으로 똘똘 뭉친회사라면 직원을 가족으로 생각하여 되지 않는가? 이뿐만 아니다. 사측은 신앙을 빙자로 노동부로부터 합법적인 설립필증을 받은 이랜드 노동조합을 태어나서는 안될 '선천적인 기형'이라면서 기필코 말살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이랜드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만든 노동조합이다. 이랜드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별지어 차별하고 노동자를 분열화하려는 자본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모범적인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 한통계약직 노동조합 ◆

한국통신은 계약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정규직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올 초에 한통 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



정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조합의 뿌리는 한국통신 비정규직의 아픔과 현실 속에 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주로 전화가설, 고장수리, ADSL개통.수리, 114전화번호안내 등 대국민 접점부서에서 85만원, 62만원, 45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3~5년 길게는 10년씩 근무해왔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하나라, 온갖 곳을 일을 다하면서도 정부의 최저생계비(39만원)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참고 일해 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이제 필요없으니 나가라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정규직도 크게 다른 것이 없다.

현재 한통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자본의 구조조정의 법적 기초를 닦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한국통신 민영화 목표 아래 전국에 있는 계약직 노동자 7000여 명, 정규직 3000여 명에게 해고통보를 해오고 있다. 97년부터 진행된 한국통신 구조조정은 98·99년 동안 정규직 1만2천 명을 해고시켰으며, 그 자리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웠다.

앞으로 이루어질 구조조정은 IMF의 망령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이 한통노동자들의 고용을 더욱더 불안하게 할 것이며, 정리해고된 자리는 또다시 계약직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통신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넘어선 싸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MWU



◆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중요한 소식 ◆

지난 12월부터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우리는 주위 이주노동자 친구들에게 장소를 이동할 때 조심하라고 당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법체류자들로 출입국의 단속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9일, 이주노동자투쟁본부와 '여성·이주 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학생동계투쟁단'은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단속을 중단하고 불법체류자를 사면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와 동계투쟁단은, 다음날인 20일에는 마석 성생공단에 찾아가 와덕업주로 소문난 4개 사업장 청문에 경고문을 붙이고 "육설 및 구타 총지", "고질적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당신의 힘

이주노동자 연대신문은 국적을 초월한 연대를 향한 도전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문화 그리고 종교와 피부색을 지녔으나 "이주노동자의 목소리"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한 같은 인간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호는 공동의 신문의 첫 번째 발행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에게는 같은 일입니다.

당신의 의의

이렇게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는 도전을 받는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는 한글판, 영문판, 방글라데시글판, 네팔글판으로 제작됩니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구독하길 원하시는 단체나 개인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편집팀은 언제나 여러분의 논평과 비판 그리고 제안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노동자 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당신이 함께 신문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에게 연락주세요.



**연수제도 박살내고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전원 사면 쟁취하자!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 연대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하자!**

- 발행 :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편집팀
- 취재 및 편집 : 주타, 안돌란, 성기르서, 헬렌, 이수미
- E-MAIL : vmigrant@hotmail.com
- 주소 : (142-103) 서울 강북구 미아 3동 121-18 3층
- 전화 : 02-985-9061 팩스 : 02-981-0963